

# 五苓散證에 대한 研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 A Study on Syndromes of Oryeongsan(五苓散證)

Dept.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Bang, Jung-Kyun

In 『Sanghanlon(傷寒論)』, there are several articles to explain about Oryeongsan's syndrome. Most important articles of them are No. 72 and No. 75. Oryeongsan is explained by many doctors as a prescription to control exterior and interior,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symptoms of 72 and 75 articles were caused by exterior and interior's syndrome. Accordingly, they explained that RAMULUS CINNAMOMI(桂枝) and warm water remove exterior pathogens, and PORIA(茯苓) and others remove interior fluid retention. But considering the origin of a fluid retention, RAMULUS CINNAMOMI's effects are rather activating Yang(通陽) and warming Yang(溫陽) than removing exterior pathogens. The fluid retention is caused by insufficiency of Yang energy, because body fluid's spreading depends on Yang energy. RAMULUS CINNAMOMI's effects of activating Yang and warming Yang improve the fluid retention and spread body fluid to the whole body. Some doctors use CORTEX CINNAMOMI(肉桂) instead of RAMULUS CINNAMOMI, because CORTEX CINNAMOMI's effects of activating Yang and warming Yang are better than RAMULUS CINNAMOMI's.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what is the main symptom of Oryeongsan's syndrome, but the difficulty in urination is understood by most doctors as the main symptom of Oryeongsan's syndrome. From the viewpoint of that, they understand that Oryeongsan's main effect is the induce diuresis. But the induce diuresis does not only mean a urination. The induce diuresis must be understood as the removing fluid retention by sweat and urine through the spreading body fluid.

Key Words : Sanghanlon(傷寒論), Oryeongsan(五苓散), RAMULUS CINNAMOMI(桂枝), induce diuresis

\* 교신저자: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33) 730-0666, bjkcw@sangji.ac.kr

## I. 緒論

『傷寒雜病論』(이하 『傷寒論』으로 略稱)에 기재된 五苓散證은 대체로 表裏證을 兼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그 결과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表邪의 제거와 利水로 설명하는 경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醫家들이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五苓散證의 主症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利水の 의미도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특히, 후대에 五苓散을 설명하면서 逐水를 통한 소변배설을 주된 효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傷寒論』의 본 취지와 부합되지 못하는 설명이다.

이에 논자는 五苓散證과 관련된 조문의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五苓散證이 발생하게 된 원인·利水の 의미·桂枝의 효능과 관련하여 醫家들의 주장을 고찰해 보고, 아울러 논자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本論

五苓散은 많은 醫家들이 表裏兩解劑로 인식하고 있다. 즉, 發汗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表邪와, 裏部로 전변되어 발생한 裏熱 및 이로 인해 발생한 水飲을 제거하는 처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五苓散과 관련된 『傷寒論』 조문의 病症 분석에 있어서도 相異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五苓散과 관련된 조문 가운데 대표적인 五苓散證이라고 할 수 있는 [72] 조문과 [75] 조문<sup>1)</sup>을 중심으로 역대 醫家들의 본 조문들의 해석 및 五苓散과 관련된 견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자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傷寒論』 [72] 조문과 [75] 조문의 原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愈.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太陽病을 發汗시킨 뒤 크게 땀이 나서 胃中이 건조하여 煩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물을 얻어 마시려 하는 자는 조금씩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여 胃氣로 하여금 和하도록 하면 곧 치유된다. 만약 脈이 浮하고 소변이 不利하며 微熱이 있고 消渴한자는 五苓散으로 主治한다.)<sup>[72]<sup>2)</sup></sup>

中風, 發熱六七日, 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名曰水逆, 五苓散主之.(中風에 6-7일간 發熱의 증상이 있으면서 풀리지 아니하고 가슴이 달아오르며 表證과 裏證이 있으면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나 물이 들어가면 吐하는 자는 그 병명을 水逆이라고 하니, 五苓散으로 主治한다.)<sup>[75]<sup>3)</sup></sup>

위에서 제시한 五苓散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成無已

成無已는 [72]조문에 대해 表邪가 이미 풀린 것과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兩分하여 이해하고 있다. 즉, 大汗出로 인해 胃中이 건조해진 경우 表邪는 이미 풀린 상태이므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여 胃氣를 적셔주면 치유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뒷부분에 대해서는 表邪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裏熱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병증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脈이 浮한 것은 表邪가 아직 풀리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소변이 不利하면서 微熱과 消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裏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1) 조문 번호는 편의상 蔡仁植 선생의 『傷寒論譯註』에 표시된 번호를 따르기로 한다.

2)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1. p.66.  
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1. p.68.

바탕으로 본 조문에 적용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는 “生津液和表裏”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75] 조문의 경우 대체로 [72] 조문의 해석과 별 차이가 없이 表裏에 모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水入則吐”의 水逆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72] 조문의 “消渴”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消渴의 경우 裏熱이 상대적으로甚해 물을 마시면 바로 물을 소모시키면서 上焦가 燥하여 갈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水逆의 경우 裏熱이甚하지 않아 마신 물을 소모시키지 못하여 停滯된 것이 쌓여 흠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75] 조문의 경우 水飲의 정체에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조문에 적용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는 “和表裏, 散停飲”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成無己는 五苓散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甘味는 완만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淡味는 滲泄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약물로 猪苓·白朮·茯苓을 언급하면서 이 3 약물의 효능을 “潤虛燥而利津液”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澤瀉는 鹹味를 지니고 있는데, 鹹味의 下泄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澤瀉의 효능을 “泄伏水”로 설명하여 停滯된 水飲을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桂枝의 경우 辛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肌表를 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아직 제거되지 못한 表邪를 제거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sup>4)</sup>.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成無己는 五苓散證을

表邪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病이 裏部로 傳變해 裏熱과 水飲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도 表邪를 제거하면서 裏熱과 水飲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成無己의 해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의가들이 成無己의 주장을 바탕으로 五苓散證을 해석하고 있다.

## 2. 張志聰

張志聰은 五苓散證에 대해 脾虛로 인한 津液의 轉輸 기능 실조를 가장 중요한 病機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72] 조문의 병증을 설명하면서 胃中乾의 증상조차도 津液이 轉輸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75] 조문의 경우 發熱의 증상에 대해 表症으로 인식하고, 갈증이 나 물을 마시려 하는 증상과 가슴이 달아오르는 증상에 대해 裏症으로 인식하면서 水逆의 병증에 대해 胃氣가 不舒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문에 사용된 五苓散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脾氣의 散精을 강조하고 있으니, 五苓散證에 대해 脾虛로 인해 津液이 轉輸되지 못하는 것을 주요 病機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張志聰은 이상의 병기 분석을 바탕으로 五苓散에 포함된 약물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白朮에 대해서 脾土의 上輸기능을 도와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白朮을 五苓散의 君藥으로 인식하고 있다. 猪苓·茯苓·澤瀉에 있어서는 白朮로 인해 上部로 轉輸된 津液을 下部로 까지 끌어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白朮은 상대적으로 津液을 上部로 轉輸해주고, 猪苓·茯苓·澤瀉는 상대적으로 下部로 轉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桂枝에 대해서는 三焦의 氣를 도와 肌肉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桂枝의 경우 表症을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表邪의 제거와 관련성이 있다. 한편, 張志聰은 五苓散의 경우 湯劑가 아닌 散劑로 사용함으로써 사방으로 퍼뜨리는 효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여 散劑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처방 뒤의 문

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80-81.

“發汗已解,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得飲水者, 少與之, 胃氣得潤則愈. 若脈浮者, 表未解也. 飲水多, 而小便少者, 謂之消渴, 裏熱甚實也. 微熱消渴者, 熱未成實, 上焦燥也, 與五苓散, 生津液和表裏.”

“中風發熱, 至六七日, 則當解. 若不解煩者, 邪在表也. 渴欲飲水, 邪傳裏也. 裏熱甚則能消水, 水入則不吐. 裏熱少則不能消水, 停積不散, 飲而吐水也. 以其因水而吐, 故名水逆. 與五苓散和表裏, 散停飲.”

“淡者一也. 口入一而爲甘, 甘甚而反淡, 甘緩而淡滲. 猪苓, 白朮, 茯苓三味之甘, 潤虛燥而利津液. 鹹味下泄爲陰, 澤瀉之鹹, 以泄伏水. 辛甘發散爲陽, 桂枝之辛甘, 以和肌表.”

구에 대해서도 水津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효능을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志聰은 脾氣虛로 인한 水飲의 정체를 주요 병기로 인식하면서 五苓散의 효능에 있어서도 水飲을 퍼뜨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張志聰의 주장은 成無已가 제시한 水飲의 停滯에 대해 구체적인 병기를 설명한 것이고, 아울러 五苓散의 효능에 있어서도 津液의 轉輸라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3. 喻嘉言

喻嘉言은 [72] 조문에 대해 解肌法(桂枝湯)을 적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發汗의 치법(麻黃湯)을 사용하여 津液을 모손시켜 나타나는 병증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과도한 發汗으로 津液이 모손되어 煩燥와 不眠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水分을 보충하면 낫는다는 것이다. 만약 水分을 보충했는데도 낫지 않고, 도리어 脈이 浮한 경우에 대해서는 邪氣가 表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喻嘉言은 脈이 浮한데 桂枝湯을 사용하지 않고 五苓散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小便不利·微熱·消渴 등의 府熱證을 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五苓散에 導濕·滋乾·清熱의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75] 조문에 대해서는 傷風證이 오래 지속되

어 땀이 많이 난 결과 津液을 손상시키고 表邪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兼하여 邪氣가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府로 침입해 들어가 府熱을 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본 조문의 病證에 대해 表邪와 府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五苓散과 따뜻한 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表裏를 모두 풀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본증에 대해 府가 裏證이기는 하지만 裏證 가운데 表에 속하는 陽이라고 설명하여 치료가 쉬움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도 通調水道를 통해 府熱이 저절로 소실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6)</sup>.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喻嘉言은 五苓散證에 대해서 成無已와 마찬가지로 表裏에 모두 병이 든 것으로 설명하면서 裏證에 대해 府熱證으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表證이 있는데 桂枝湯을 사용하지 않고 五苓散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府熱을 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五苓散의 효능에 있어 導濕과 清熱을 강조하면서, 通調水道의 효능을 통해 熱이 제거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五苓散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方解와 관련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 4. 張璐

張璐는 [72], [75] 조문의 해석에 있어 喻嘉言의 견

5)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41-642.

“太陽病，發汗後，大汗出者，竭中焦水穀之津，故胃中乾。津液不能滋潤于上，則煩躁，胃不和，則不得眠也。欲得陰水者，不可恣其所欲，須少與飲之，蓋陽明乃燥熱之氣，水乃陰寒之質，令陰陽合而胃氣和則愈，使胃氣不能自和，必因脾氣之并虛矣。若脈浮者，浮則爲虛，脾虛不能爲胃行其津液，故小便不利也。身微熱者，脾氣虛而身熱也，消渴者，津液不輸而消渴也。五苓散主之，白朮助脾土之上輸，苓·澤運水道之升已而降，桂枝助三焦之氣以溫肌肉，用散者取其四散之意，多飲暖水汗出者，助水津之四布也。……此言不因發汗，若欲作再經而煩渴者，亦主五苓散，以別上三節發汗而渴之意。中風發熱，至六七日不解，夫六日一周，七日來復而不解，將值陽明主氣之期，煩渴者，胃絡不上通于心則煩，風熱交熾于內則渴。發熱不解，表證也，渴欲陰水而煩，裏證也，水入則吐者，胃氣之不舒，名曰水逆。夫胃既不能遊溢精氣上輸于脾，仍藉脾氣之散精，通調輸布，五苓散主之，是其意也。”

6) 陳熠 主編. 喻嘉言醫學全書·尙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22.

“不行解肌，反行發汗，致津液內耗，煩躁不眠，求救于水，若水入不解，脈轉單浮，則無他變，而邪還于表矣。脈浮本當用桂枝，何以變用五苓耶？蓋熱邪得水，雖不全解，勢必衰其大半，所以邪既還表，其熱亦微，兼以小便不利，證成消渴，則府熱全具，故不從單解，而從兩解也。凡陰水多而小便少者，謂之消渴，裏熱熾盛，何可復用桂枝之熱？故導濕，滋乾，清熱，惟五苓有全功耳。”

“傷風證原有汗，以其有汗也，延至日久，不行解肌之法，汗出雖多，徒傷津液，表終不解。轉增煩渴，邪入于府，飲水則吐者，名曰水逆，乃熱邪挾積飲上逆，以故外水格而不入也。服五苓散後，頻瀉熱湯，得汗則表裏俱解。蓋表者，陽也，裏之屬府者，亦陽也，所以一舉兩得也。然亦以未經誤治，邪不內陷，故易爲力耳。膀胱爲津液之府，用五苓散通調水道，則火熱自化，而津液得全矣。”

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sup>7)</sup>. 다만 五苓散의 方解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그는 五苓散을 内外의 水飲을 제거하는 으뜸 방제로 인식하면서, 아울러 表裏의 병증을 모두 풀어주는 처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약물의 효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茯苓과 猪苓에 대해서 滲水逐飲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水飲을 제거하는 약물로 인식하고 있다. 張璐는 五苓散의 君藥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 처방을 水飲을 내쫓는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茯苓과 猪苓을 여러 약물 가운데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茯苓과 猪苓을 五苓散의 주 약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澤瀉에 있어서는 “泄腎止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泄腎의 의미는 膀胱府熱을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白朮에 있어서는 “燥脾逐濕”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五苓散의 의미를 逐水飲으로 보는 견해가 白朮의 효능 인식에 있어서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桂에 대해서 張璐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五苓散의 桂에 대해 桂枝라고 인식하면서 그 효능을 表邪를 흠어 버리고 榮氣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桂를 桂枝나 肉桂 어느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별해서 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溫表를 兼하려고 할 때는 桂枝를 사용하고, 五苓散을 오로지 利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肉桂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以上的 주장을 통해서 볼 때 張璐는 五苓散에 대해 주로 水飲을 쫓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五苓散에 포함된 桂에 대해서는 桂枝를 위주로 생각하여 表邪를 치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

고, 만약 利水의 목적으로 五苓散을 투여 할 경우 肉桂로 바꿀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桂枝 및 肉桂와 관련된 張璐의 주장은 五苓散의 효능을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대의 여러 의가들에 의해 제시되듯이 桂枝의 경우에도 通陽의 효능을 통해 利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桂枝의 효능을 오로지 表邪의 제거에만 한정 짓고 있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 5. 黃元御

黃元御는 [72] 조문에 대해 “胃中乾, 煩不得眠”의 증상에 대해서는 陽盛한 사람이 發汗으로 인해 陰이 모손되어 土가 燥해져 陽明으로 入한 白虎湯證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조문의 뒤에 서술된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의 증상에 대해서는 陰盛한 사람이 陽이 모손되어 土가 濕해져 太陰으로 入한 五苓散證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조문에 적용된 五苓散의 효능을 土濕을 말려 주고 水를 行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黃元御는 五苓散證에 대해서 濕이 積滯된 鬱滯의 측면을 강조하여, 小便不利와 消渴의 증상을 설명함에 있어 木氣의 鬱滯를 주된 病機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脈浮에 대해서는 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9)</sup>.

[75] 조문에 대해서는 앞선 醫家와 마찬가지로 表裏證이 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五苓散을 解表瀉水의 처방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약물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桂枝에 대해 行經과 發表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 白朮은 土를 말려주면서 津液을 생성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茯苓, 猪苓, 澤瀉는 行水·瀉濕

7) 張民慶, 王興華, 劉華東 主編.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65-566.

8) 張民慶, 王興華, 劉華東 主編.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8.

“此兩解表裏之藥, 故去覆取微汗. 茯苓, 猪苓味淡, 所以滲水滲飲也. 澤瀉味鹹, 所以泄腎止渴也. 白朮味甘, 所以燥脾逐濕也. 桂枝味辛, 所以散邪和榮也. 欲兼溫表, 必用桂枝, 專用利水, 則宜肉桂, 妙用全在乎此. 若以其辛熱而去之, 則何能疏肝伐腎, 通津利水乎? 此逐内外水飲之首劑.”

9) 孫洽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傷寒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5.

“發汗後, 陽盛之人, 陰亡土燥, 則入陽明, 而成白虎證, 陰盛之人, 陽亡土濕, 則入太陰, 而成五苓證. …… 若汗後脈浮, 小便不利, 熱微消渴, 則太陰之象已見端倪, 宜以五苓燥土而行水. 蓋陽格于外, 表證未解, 是以脈浮. 濕動于內, 木氣不達, 是以小便不利. 木鬱風動, 耗傷肺津, 是以消渴. 此之消渴, 消少水而頻飲, 不能大消, 以其濕盛而熱微也.”

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은 皮毛를 蒸瀉하여 積滯된 水濕을 땀을 통해 흘려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0)</sup>.

以上的 설명에서 보이듯이 黃元御는 五苓散證에 있어 水濕의 운행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陰盛한 사람이 發汗으로 인해 陽이 소모되어 亡陽의 상태에 빠지게 됨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五苓散에 포함된 약물의 효능 설명에 있어서도 行經과 行水의 의미를 부각시킨 점을 볼 때 停滯된 水濕의 운행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6. 柯琴

柯琴은 [72] 조문의 “胃中乾, 煩燥不得眠, 欲飲水”의 증상에 대해 陽明證으로 傳變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病機를 發汗의 過多로 인해 津液이 모손되어 발생한 火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의 증상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發汗을 시켰는데도 脈이 浮한 것에 대해서는 表邪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消渴과 小便不利에 대해서는 水氣가 정체되어 不散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柯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陽氣의 문제이다. 즉, 寒邪의 침습을 받아 太陽의 외부를 호위하는 陽氣가 미약해져 邪氣를 억제하지 못하여 心下에 水氣가 쌓이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胸中の 陽氣가 水氣를 흘려버리지 못하여 煩渴과 小便不利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陽氣의 微弱이 병증 발생의 원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체내 水液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0)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傷寒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6.

“太陽表證未解, 而裏有水氣, 小青龍, 五苓散, 皆解表瀉水之劑. …… 中風, 發熱六七日, 經盡不解, 而且煩渴思飲, 外而發熱, 是有表證, 內而作渴, 是有裏證. 內渴欲飲水, 而水入則吐者, 是有裏水滯停也, 此名水逆. 由舊水在中, 而又得新水, 以水濟水, 正其所惡, 兩水莫容, 自當逆上也. 五苓散, 桂枝行經而發表, 白朮燥土而生津, 二苓, 澤瀉, 行水而瀉濕也. 多服暖水, 蒸瀉皮毛, 使宿水亦從汗散, 表裏皆愈矣.”

즉, 胸中の 陽氣 즉 肺氣가 부족하여 氣化작용이 일어나지 못하여 津液이 膀胱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또한 心氣가 不化하여 水가 부족해져 아래로 흘러가지 못하여 小便不利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柯琴은 본 조문의 치법에 대해 上焦를 通하게 해야 停滯된 津液이 아래로 배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 上焦를 적서줌으로써 下焦로 소변을 배설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본 조문의 주된 증상을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 과급되니, 柯琴은 본 조문의 主證을 脈浮發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기존의 醫家들이 水飲의 停滯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柯琴은 寒邪로 인해 上焦인 心肺의 陽氣가 모손되고, 그 결과 陽氣의 氣化작용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津液이 생성되지 못하여 小便不利 등의 여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75] 조문의 병기에 대해서는 表邪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心下에 水氣가 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胸中の 陽氣가 퍼지지 못하여 水氣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조문에 사용된 五苓散을 해석하면서,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 停滯된 水飲을 땀을 통해 몰아냄으로써 表裏의 병증을 제거하는데 중

11)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15-116.

“妄發其汗, 津液大泄, 故胃中乾. 汗爲心液, 汗多則離中水虧, 無以濟火, 故煩. 腎中水衰, 不能制火, 故躁. 精氣不能游溢以上輸于脾, 脾不能爲胃行其津液, 胃不和, 故不得眠. 內水不足, 須外水以相濟, 故欲飲水. 此便是轉屬陽明證. 水能制火而潤土, 水土和合, 則胃家不實, 故病愈. 但無令忤服, 使水氣爲患而致悸喘等證也. 所以然者, 其人內熱尚少, 飲不能多, 無多與耳. 如飲水數升而不解者, 又當與白虎人參湯矣. 若發汗後, 脈仍浮, 而微熱猶在, 表未盡除也. 雖不煩而渴特甚, 飲多則消, 小便反不利, 水氣未散也. 傷寒者, 傷于冬時寒水之氣, 太陽衛外之陽微, 不足以御邪, 寒水得以內侵, 所以心下有水氣, 胸中之陽, 又不足以散水氣, 故煩渴而小便不利耳. 小便由於氣化. 肺氣不化, 金不生水, 不能下輸膀胱. 心氣不化, 離中水虛, 不能下交於坎. 必上焦得通, 津液得下. 桂枝色赤入丙, 四苓色白歸辛, 丙辛合爲水運, 用之爲散, 散于胸中, 必先上焦如霧, 然後下焦如瀆, 何有煩渴癱閉之患哉. 要知五苓, 重在脈浮發熱, 不重在小便不利.”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柯琴은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發汗과 逐水를 강조하면서, 많은 醫家들이 利水와 生津液에 의미를 두었던 것에 반대하고 있다. 柯琴이 주장하는 五苓散의 發汗과 逐水 효능은 五苓散이 心肺를 滋養함으로써 心氣·肺氣의 기화작용을 회복시키고, 心氣·肺氣의 氣化 작용을 통해 皮毛로 精이 輸布되고 水道가 通調되며, 그 결과 脾胃가 남으로써 表證과 水飲이 풀린다는 것이다<sup>12)</sup>.

以上에서 살펴보듯이 柯琴은 五苓散證에 대해서 表證과 水飲의 停滯로 인식하여 다른 醫家들의 견해와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病機에 대해 胸中の 陽氣에 문제가 생겨 水液이 轉輸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즉,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 桂枝를 通經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散劑를 이용한 것에 대해 胸中の 水精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효능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많은 醫家들이 五苓散의 主證을 小便不利로 보아 小便이 배설되는 것을 치료의 징험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柯琴은 脾胃가 나쁜 것을 치료의 징험으로 삼았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五苓散의 복용을 통해 胸中の 陽氣가 회복되고, 그 결과 정체된 水飲이 皮毛로 外溢되고 水道가 通調됨으로써 脾胃가 나쁜 것을 병증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12)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13-114, 120.

“表熱不解，內復煩渴者，因於發汗過多，反不受水者，是其人心下有水氣。因離中之眞水不足，則膈中之火用不宣。邪水凝結於內，水飲拒絕於外，既不能外輸於玄府，又不能上輸於口舌，亦不能下輸於膀胱，此水逆所由名也。勢必藉四苓輩味之淡者，以滲泄其水。然水氣或降，而煩渴未必除，表熱未必散。故必借桂枝之辛溫，入心而化液，更仗暖水之多服，推陳而致新。斯水精四布而煩渴解，輸精皮毛而汗自出，一汗而表裏頓除，又大變乎麻黃桂枝葛根青龍等法也。…… 猪苓色黑入腎，澤瀉味鹹入腎，具水之體。茯苓味甘入脾，色白入肺，清水之源。桂枝色赤入心，通經發汗，爲水之用。合而爲散，散於胸中則水精四布，上滋心肺，外溢皮毛，通調水道，一汗而解矣。本方治汗後表裏俱熱燥渴煩躁不眠等證，全同白虎，所異者，在表熱未解，及水逆與飲水多之變證耳。若謂此方是利水而設，不識仲景之旨矣。若謂用此以生津液，則非滲泄之味所長也。”

## 7. 尤在涇

尤在涇은 [72] 조문의 병증에 대해 전반부는 陽明府熱證으로 인식하고 후반부는 膀胱府熱證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본 조문에 사용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利水시킴으로써 膀胱府의 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五苓散에 대해 表裏를 모두 풀어주는 처방이라는 인식에 반대하면서,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五苓散을 복용한 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 땀을 내는 이유는 脈이 浮하고 微熱이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따뜻한 물을 복용하여 表邪를 땀을 통해 배설시키는 것 때문에 五苓散이 表裏를 모두 풀어주는 처방으로 잘못 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75] 조문에 대해서 表裏證이 兼하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서는 導水泄熱로 설명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sup>13)</sup>.

以上에서 살펴보듯이 尤在涇은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利水에 초점을 맞추면서 利水를 통해 裏熱을 풀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表邪의 처치에 대해서는 따뜻한 물을 복용하여 땀을 통해 배설시킨다고 주장하면서, 五苓散과 表證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 8. 吳謙

吳謙은 [72] 조문의 병증에 대해 太陽의 表邪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와 膀胱의 裏陰이 이미 이루어진 상

13)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0, 26.

“傷寒之邪，有離太陽之經，而入陽明之府者，有離太陽之標，而入太陽之本者，發汗後，汗出胃乾，煩燥飲水者，病去表而之裏，爲陽明府熱證也。脈浮，小便不利，微熱消渴者，病去標而之本，爲膀胱府熱證也。在陽明者，熱能消水，與水即所以和胃。在膀胱者，水與熱結，利水即所以去熱。多服暖水汗出者，以其脈浮而身有微熱，故以此兼微其表，昔人謂五苓散爲表裏兩解之劑，非以此耶？…… 太陽風邪，至六七日之久而不解，則風變熱而傳裏，故煩而渴。有表裏證，即身熱煩渴之謂。渴欲飲水，水氣不行，而反上逆則吐。名水逆者，言因水氣而逆，非火逆氣逆之謂。故當以五苓散，辛甘淡藥，導水而泄熱也。”

태가 兼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五苓散의 효능을 밖으로 表熱을 풀어주고 안으로 水府를 轉輸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본 조문에서는 五苓散의 효능을 邪熱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75] 조문에 대해서는 表裏가 兼한 證이라고 하면서 水逆에 대해서 邪熱이 裏部로 들어가 내부의 水飲과 응결되어 三焦가 蒸化작용을 잃게 되어 水道가 通調되지 못하고 膀胱으로 下輸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본 조문에서는 水飲의 停滯에 초점을 맞추어 陽의 氣化작용을 提高하는 것으로 五苓散의 효능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吳謙은 五苓散證의 病機에 대해 表裏의 兼病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三焦의 蒸化기능의 상실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五苓散의 方解에서도 나타나니, 五苓散을 水熱과 小便不利를 다스리는 처방으로 설명하면서 肉桂의 宣通陽氣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즉, 肉桂의 陽氣를 宣通시키는 효능을 통해 三焦의 蒸化기능이 발휘됨으로써 水液이 운행되면 小便不利를 야기한 水飲의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吳謙은 停滯된 水飲의 裏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表證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으니, 發熱이 풀리지 않는 경우 肉桂를 桂枝로 바꾸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여 땀을 낼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表部의 邪氣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五苓散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4)</sup>.

14) 吳謙. 御纂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p.15-16.  
“太陽病, 發汗後, 或大汗出, 皆令人津液內竭,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得飲水, 當少少與之, 以滋胃燥, 令胃氣和, 則可愈也. 倘與之飲, 胃仍不和,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則是太陽表邪未罷, 膀胱裏飲已成也. 經曰, 膀胱者, 津液之府, 氣化則能出矣. 今邪熱熏灼, 燥其現有之津, 飲水不化, 絕其未生之液. 津液告匱, 求水自救, 所以水入則消, 渴而不止也. 用五苓散者, 以其能外解表熱, 內輸水府, 則氣化津生, 熱渴止而小便利矣. ……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者, 是有表證也.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是有裏證也. 若渴欲飲水, 水入則消, 如前條之胃乾, 少少與飲, 令胃和則愈. 今渴欲飲水, 水入不消, 上逆而吐, 故名曰水逆. 原其所以吐之由, 則因邪熱入裏, 與飲相搏, 三焦失其蒸化, 而不能通調水道, 下輸膀胱, 以致飲熱相格于上, 水無去路于下, 故水入則吐. 小便必不利也, 宜五苓散辛甘淡滲之品, 外解內利. 多服煖水, 令其汗出

以上에서 살펴보듯이 吳謙은 [72], [75] 조문의 病機를 설명함에 있어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72] 조문의 경우 邪熱이 水飲의 정체보다 심한 상태이므로 五苓散의 효능을 表部의 邪氣와 裏部의 熱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비해 [75] 조문에 대해서는 水飲의 정체가 심한 것으로 이해하여 五苓散의 효능을 陽氣의 宣通을 통해 三焦의 蒸化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水飲의 停滯를 운행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五苓散에 포함된 桂에 대해 邪熱이 심한 경우 桂枝를 사용하고, 水飲의 停滯가 심한 경우 肉桂를 사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9. 陳修園

陳修園은 [72] 조문의 脈浮·小便不利의 증상에 대해 脾氣가 轉輸되지 못한 결과 胃의 津液이 行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微熱과 消渴의 증상에 대해서는 表裏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微熱은 表에 있는 邪氣가 풀리지 않아 발생하고 消渴은 裏部의 熱이 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病機 분석에 근거하여 五苓散의 효능을 水氣를 布散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停滯된 水飲을 배설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醫家들이 小便을 통한 배설을 주장하는 것에 비해, 五苓

尿通, 則表裏兩解矣. …… 是方也, 乃太陽邪熱入府, 水氣不化, 膀胱表裏藥也. 一治水逆, 水入則吐, 一治消渴, 水入則消. 夫膀胱者, 津液之府, 氣化則能出矣. 邪熱入之, 與水合化爲病. 若水盛于熱, 則水壅不化, 水蓄于上, 故水入則吐. 乃膀胱之氣化不行, 致小便不行也. 若熱盛于水, 則水爲熱灼, 水耗于上, 故水入則消. 乃膀胱之津液告竭, 致小便無出也. 二證皆小便不利, 故均得而主之. 若小便自利者, 不可用, 恐重傷津液, 以其屬陽明之裏, 故不可用也. 由此可知五苓散非治水熱之專劑, 乃治水熱小便不利之主方也. 君澤瀉之鹹寒, 鹹走水府, 寒勝熱邪. 佐二苓之淡滲, 通調水道, 下輸膀胱, 則水熱并瀉也. 用白朮之燥濕, 健脾助土, 爲之堤防以制水也. 用桂之辛溫, 宣通陽氣, 蒸化三焦以行水也. 澤瀉得二苓下降, 利水之功倍, 則小便利, 而水不蓄矣. 白朮藉桂上升, 通陽之效捷, 則氣騰津化, 渴自止也. 若發熱不解, 以桂易桂枝, 服後多服煖水, 令汗出愈. 是知此方不止治停水小便不利之裏, 而猶解停水發熱之表也. 加人蔘名春澤湯, 其意專在助氣化以生津. 加茵陳名茵陳五苓散, 治濕熱發黃, 表裏不實, 小便不利者, 無不效也.”

散의 효능을 水飲을 轉輸하여 布散시키는 것이지 오로지 下行시켜 滲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sup>15)</sup>.

以上에서 살펴보듯이 陳修園도 五苓散證에 대해 表裏가 兼하여 병든 것으로 지적하여 成無已 등 以前醫家の 病機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水飲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脾의 轉輸기능의 상실을 위주로 인식하여, 五苓散의 효능을 水氣의 布散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水氣의 布散에 대해 小便의 배설 즉 下行의 의미보다 全身으로의 轉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니, 이를 통해 利水의 의미가 단순히 利尿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10. 唐容川

唐容川은 陳修園이 五苓散證에 대해 脾氣가 轉輸되지 못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흡족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陳修園은 小便不利의 측면만 강조하여 脾氣의 轉輸기능 상실을 중요시 했지만, 渴證이 생기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唐容川은 술 속의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어 솥뚜껑에 닿으면 물이 되는 것에 비유하면서, 膀胱의 氣化 작용이 일어나 水氣가 上部인 입으로 가서 변화하여 津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증뿐만 아니라 小便不利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氣化작용이 발휘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으니, 그 기전에 대해 發汗으로 인해 陽氣가 外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陽氣가 外泄되면 胞室氣海의 火가 부족하여 水氣를 蒸化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小便이 不利하고 갈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桂枝를 五苓散의 주 약재로 인식하면서 桂枝의 효능을 心火를 引導하여 아래로 水와

사귀게 하여 水를 化氣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桂枝의 通陽·溫陽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니 陽氣를 宣通시켜 水를 蒸化시킴으로써 갈증과 소변불리의 증상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唐容川은 五苓散을 利水·化氣·升津·除熱의 妙劑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효능이 발휘되는 것을 化氣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sup>16)</sup>.

以上에서 살펴보았듯이 唐容川은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氣化 작용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陳修園이 단순히 停滯된 水飲의 布散을 강조하였던 것을 비판하면서, 汗出로 인해 陽氣가 外泄됨으로써 氣化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갈증과 소변불리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唐容川은 五苓散證에 대해 膀胱의 氣化 작용이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膀胱에서 저장하고 있는 津液이 停滯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五苓散으로 膀胱에 停滯된 水飲을 泄해주면 小便이 풀리면서 津液이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1. 李培生

李培生은 五苓散證을 太陽蓄水證의 항목에서 설명하면서 小便不利와 渴證이 나타나는 이유를 膀胱의 氣化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五苓散證 가운데 小便不利를 主症으로 인식하여, 五苓散의 효능을 化氣行水가 위주가 되고 解表를 兼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6)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24.

“五苓散是治停水利小便，何以即能止渴哉？陳注爲脾不轉樞，津液不行，究屬一間未達。不知人口中津，即膀胱所化之氣也，氣出于鼻，著于漆石之上，則化爲水氣，上于口，則化爲津，此如釜中煎水出氣，熏于蓋上即爲氣水，是一理也。凡人所飲之水，從三焦膜油之中下入膀胱，有似釜中之水，凡人鼻間吸入太陽之氣，從肺歷心，由氣管下抵丹田胞室之中，有似釜抵添薪以煎水也。是爲心火下交，以火蒸水，而膀胱中水乃化氣上行，是爲津，有似釜蓋上之氣水一般。其既化不盡之水質，則泄爲小便，小便利而津液布，其理如此。若空言脾不轉樞，則其理不實。此證之小便不利消渴，是因汗大出，陽氣外泄，故身微熱而脈浮。陽氣外泄，則胞室氣海之中無火以蒸其水，是以水不化氣也。方用桂枝爲主，導心火下交于水以化氣。白朮升津，茯苓利水，爲利水化氣升津除熱之妙劑，此所以化氣之理也。”

15)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p.397-398.

“若脈浮，小便不利，乃脾氣不能轉輸，而胃之津液不行也。微熱，乃在表之邪未解也。消渴者，飲入而消，熱甚于裏故也。以脈浮在表而微熱，以脾不轉輸，故小便不利而消渴。與五苓散，能布散水氣，可以主之。……蓋以五苓散降而能升，山澤通氣之謂也。通即轉輸而布散之，不專在下行而滲泄也。”

한편, 五苓散의 適應症에 대해 表證의 有無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桂枝의 효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李培生은 桂枝의 효능에 있어 通陽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膀胱의 氣化 작용을 도와 茯苓 등의 利水 기능을 복돋워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表證이 있을 때는 桂枝를 사용하고, 表證이 없을 때는 肉桂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면서, 桂枝는 桂樹의 어린 가지로 通陽化氣의 효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桂枝가 五苓散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水逆을 설명하는 조문에서는 桂枝의 降衝逆 효능을 설명하면서 五苓散에 포함된 桂에 대한 桂枝와 肉桂의 논쟁과 관련하여 桂枝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7)</sup>.

## 12. 裴永淸

裴永淸은 五苓散의 適應證에 대해 李培生과 마찬가지로 太陽蓄水證의 表邪가 未解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表邪를 兼해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五苓散의 처방 뒤에 서술된 “汗出則愈”의 구절에 대해, 麻黃湯 등 表證에 사용하는 처방 뒤에 서술된 “汗出則愈”의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五苓散의 경우 內停된 水飲이 三焦·膀胱의 氣化 기능이 회복됨으로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땀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五苓散의 適應證에 반드시 表證을 兼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水痞·水癩·水眩 등의 증상은 表證과 관련이 없지만 五苓散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18)</sup>.

## III. 考 察

以上에서 살펴본 五苓散證과 관련된 역대 醫家들

17)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155-158, 160-161.

18) 裴永淸, 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p.76-77.

의 견해 가운데, 五苓散證의 발생원인과 利水の 의미 및 桂枝의 효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이와 관련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五苓散證의 발생원인

역대 醫家들의 五苓散證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表裏證이 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일부 醫家는 반드시 表證을 兼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五苓散의 적응증을 확장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五苓散證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醫家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서 논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喻嘉言은 [72] 조문의 경우 五苓散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解肌法 즉 桂枝湯을 적용해야 할 증상에 發汗法인 麻黃湯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75] 조문의 경우에는 傷風證이 오래 지속되어 땀이 많이 난 결과 津液을 손상시키고 表證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喻嘉言은 桂枝湯證을 잘못 誤治하거나 適期の 치료를 行하지 않아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진액 모순에만 초점을 맞추어 府熱證을 설명하는 데는 타당하지만, 水飲의 停滯가 발생하게 된 기전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黃元御는 陰盛한 사람이 發汗으로 인해 亡陽의 상태에 빠지고 土가 濕해짐으로 인해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평소의 陰盛을 제기한 黃元御의 주장은 水飲의 停滯가 위주가 되는 五苓散證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發汗의 치법이 誤治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發汗으로 “陽亡土濕”의 상태가 되는 기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셋째, 柯琴은 寒邪의 침습을 받아 陽氣가 微弱해져 邪氣를 억제하지 못하여 心下에 水氣가 쌓이고, 이 상태에서 胸中の 陽氣가 水氣를 흠어버리지 못하여 五苓散證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陽氣

의 부족으로 水飲이 정체되어 五苓散證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寒邪의 침습을 받는다고 반드시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唐容川은 發汗으로 인해 陽氣가 外泄되어 陽氣의 不足으로 水氣를 蒸化시키지 못하여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唐容川의 설명은 五苓散證의 발생과 관련하여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發汗으로 인해 陽氣가 外泄되었다고 모두 五苓散證으로 傳變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 醫家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자의 견해를 첨부하여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傷寒論』에 기술된 五苓散證은 桂枝湯證을 麻黃湯으로 잘못 誤治하여 陽氣가 더욱 모손되거나, 桂枝湯證에 適期의 치료가 行해지지 않아 陽氣가 外泄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桂枝湯證의 경우 평소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邪氣를 감수 받아, 邪氣가 피부보다 深部인 肌肉에까지 침습한 것이다<sup>19)</sup>. 이 경우 桂枝湯으로 解肌 시켜야 하는데 麻黃湯으로 發汗 시킬 경우 陽氣를 더욱 모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찬가지로 평소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邪氣를 감수 받았는데, 適期의 치법이 행해 지지 않아 汗을 계속 흘리게 되면 陽氣가 外泄되어 陽氣가 더욱 虛해 지는 것이다.

둘째, 五苓散의 주된 효능을 利水라고 한다면 水飲의 정체와 관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桂枝湯證의 誤治와 치료의 지연으로 인해 陽氣가 모손 된 경우 모두 五苓散證으로 傳變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五苓散證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陽氣 不足 이외에 또 다른 素因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니, 黃元御가 제시한 “陰盛之人”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陰盛의 의미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水飲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에 陽氣 不足 등의 문제로 인해 津液의 轉輸가 이루어 지지 못한 素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평소에 陽氣의 부족으로 체질이 허약하고, 또한 津液의 轉輸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素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邪氣의 침습을 받아 병이 발생하였는데, 誤治와 치료의 지연으로 인해 陽氣가 더욱 모손되고 水飲이 더욱 정체되면 결과적으로 五苓散證으로 전변되는 것이다.

## 2. 利水의 의미

五苓散의 주된 효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利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利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미를 달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利水의 의미를 汗의 배출이나 소변의 배설 등 일정한 모습을 띄고 水飲이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全身으로 停滯된 水飲이 퍼져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張志聰·張璐·陳修園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니, 張志聰은 脾氣의 轉輸 기능을 도와 停滯된 水飲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것을 利水라고 보았다. 陳修園은 張志聰의 견해를 따르면서 많은 醫家들이 水飲을 下行시키는 소변 배설만을 利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張璐는 利水의 목적으로 五苓散을 투여할 경우 桂枝 대신 肉桂를 사용한다고 하여, 利水에 있어 通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利水의 주된 의미를 소변 배설로 인식하는 것이니 喻嘉言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는 膀胱이 津液을 저장하고 있는데, 鬱滯된 水道를 通調시켜 소변이 배설되면 府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吳謙은 五苓散의 主證을 水熱과 小便不利라고 인식하면서, 肉桂의 陽氣를 宣通시키는 기능을 통해 三焦의 蒸化기능이 발휘됨으로써 水濕이 운행되어 소변이 풀리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汗을 내는 것을 利水의 의미로 이해하는 醫家가 있으니, 黃元御·柯琴·裴永清 등이 이에 해당된

19) 方正均.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大韓 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143.

다. 黃元御는 五苓散의 효능에 있어 行經과 行水를 강조하여 鬱滯된 水濕을 운행시키는 것을 利水の 의미로 보았다. 특히, 따뜻한 물을 복용하게 되면 皮毛를 蒸瀉하여 積滯된 水濕이 땀을 통해 배설됨을 주장하였다. 柯琴도 胸中の 陽氣를 도와 停滯된 水飲을 皮毛로 外溢시키는 것을 利水の 의미로 보았다. 한편, 裴永淸은 五苓散의 투여를 통해 三焦와 膀胱의 氣化 기능이 회복되면 停滯된 水飲이 풀리는데, 이 과정에서 땀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利水の 기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利水の 의미와 관련된 해석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水飲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것, 둘째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 셋째 땀을 통해 배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利水の 의미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五苓散證의 주된 病症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停滯된 水飲의 해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醫家들이 以上에서 제기한 利水の 3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여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五苓散의 주된 病症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변의 배설·땀의 배출·津液의 轉輸 등으로 利水와 관련된 해석의 무게 중심이 옮겨 갈 수 있지만, 이 3가지 효능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後代에 五苓散의 효능을 오로지 利尿를 통한 逐水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醫家들이 氣化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利水の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五苓散證은 평소에 陽氣가 虛하여 水飲이 정체된 素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邪氣의 침습을 받아 病이 발생하는데, 誤治와 치료의 지연 등으로 인해 傳變된 病症이다. 즉, 본증은 陽氣가 虛한 것과 水飲의 停滯라는 病機를 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停滯된 水飲을 逐水해서 호전될 수 없고, 반드시 陽氣의 氣化 작용을 도와 줌으로써, 이를 통해 停滯된 水飲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停滯된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소변이 배설될 수 있고, 땀이 날 수도 있으며, 또한 갈증이 소실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소변이 배설되고 땀이 나며 갈

증이 해소되는 것은 陽氣의 氣化 작용이 회복되어 停滯되었던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徵驗이지, 단순히 逐水를 통한 소변의 배설 등이 五苓散 투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이다.

### 3. 桂枝의 효능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成無己가 表裏兩解之劑로 설명한 이래, 대부분의 醫家들이 成無己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五苓散에 포함된 桂를 桂枝로 인식하고, 桂枝의 효능을 表邪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醫家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五苓散의 適應證은 表證과 관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桂枝의 효능에 대해서 通陽·溫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五苓散에 포함된 桂에 대해 桂枝와 肉桂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이에 以上의 내용과 관련된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五苓散證을 表裏의 兼病으로 보는 것이니, 成無己·張志聰·喻嘉言·張璐·黃元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醫家들은 桂를 桂枝로 인식하면서, 桂枝의 효능을 주로 肌表를 和하게 하는 表邪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다만, 黃元御는 桂枝의 효능에 대해 發表뿐만 아니라 行經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桂를 肉桂로 인식하거나, 桂枝와 肉桂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吳謙은 桂를 肉桂로 인식하여 陽氣의 宣通을 중요시 하면서 發熱이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桂枝로 바꿀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張璐는 桂를 桂枝로 인식하면서도 桂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溫表의 효능을 兼하려 할 때는 桂枝를 사용하고, 전적으로 利水の 효능을 얻고자 할 때는 肉桂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吳謙과 張璐의 주장은 五苓散의 효능에 대해 陽氣의 宣通을 강조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킨 측면이 있지만, 桂枝의 효능에 대해서는 以前 醫家들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五苓散證의 表裏 兼病 여부와 관련된 논쟁

이다. 이에 대해 尤在涇은 五苓散이 表證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唐容川은 이와 관련되어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桂枝의 효능을 다만 通陽·溫陽의 의미로만 설명을 하여, 表邪의 제거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李培生과 裴永淸은 일면 五苓散證의 表裏 兼病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表證을 兼할 필요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李培生은 以前 醫家들이 通陽의 목적으로 五苓散을 사용할 경우 桂枝 대신 肉桂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桂枝는 桂樹의 어린 가지로 通陽化氣의 효능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桂枝의 降衝逆 효능을 통해 水逆證을 치료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니, 이 경우도 桂枝의 通陽化氣 효능을 통해 停滯된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衝逆의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以上的 내용을 통해 桂枝의 효능을 정리해 보면, 五苓散證에 대해 表裏의 兼病을 주장하는 醫家들은 桂枝의 효능을 表邪의 제거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五苓散證을 表證과 무관하거나, 혹은 반드시 表證을 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醫家들은 桂枝의 효능을 주로 通陽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傷寒論』은 外感邪氣로 인해 야기된 병증의 病機와 治法을 서술한 서적이다. 그러므로 外感邪氣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처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五苓散證과 관련된 『傷寒論』 조문에 “有表裏證”이라는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醫家들이 五苓散의 효능을 表裏兩解之劑로 인식하고, 桂枝의 효능을 表邪의 제거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傷寒論』을 응용하는 醫家들은 外感病 뿐만 아니라 內傷病에도 『傷寒論』의 처방을 選用하고 있다. 五苓散도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外感病에만 적용되는 처방은 아닌 것이다. 즉, 陽氣가 不足하여 氣化 작용이 발휘되지 않고, 그 결과 水飲이 停滯된 경우 五苓散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內傷病에 五苓散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桂枝의 효능을 오로지 表邪의 제거와 관련시키

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桂枝의 通陽·溫陽 기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外感病의 表裏證을 兼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桂枝의 효능은 表邪 제거 보다 通陽의 효능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소 陽氣가 虛弱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받아 桂枝湯證이 발생하였는데, 發汗法의 誤治를 하거나 치료를 지연하여 陽氣가 더욱 모손되고 兼하여 裏部로 傳變된 것이 五苓散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桂枝의 효능이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表邪의 제거와 관련이 있겠지만, 주된 효능은 오히려 通陽을 통해 陽氣의 氣化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IV. 結 論

五苓散證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五苓散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평소에 陽氣의 부족으로 체질이 허약하고, 또한 津液의 轉輸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素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邪氣의 침습을 받아 병이 발생하였는데, 誤治와 치료의 지연으로 인해 陽氣가 더욱 모손되고 水飲이 더욱 정체되면 결과적으로 五苓散證으로 전변되는 것이다.

둘째, 五苓散의 주된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 利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五苓散證은 陽氣가 虛한 것과 水飲의 停滯라는 病機를 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停滯된 水飲을 逐水해서 호전될 수 없고, 반드시 陽氣의 氣化 작용을 도와 줌으로써, 이를 통해 停滯된 水飲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停滯된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소변이 배설될 수 있고, 땀이 날 수도 있으며, 또한 갈증이 소실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소변이 배설되고 땀이 나며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陽氣의 氣化 작용이 회복되어 停滯되었던 水飲이 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徵驗이지, 단순히 逐水를 통한 소변의 배설 등이 五

苓散 투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이다.

셋째, 五苓散은 內外傷을 不問하고 陽氣가 부족하여 氣化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 水飮이 停滯된 병증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와 같이 內傷病에도 五苓散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桂枝의 효능을 오로지 表邪의 제거와 관련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桂枝의 通陽·溫陽 기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外感病의 表裏證을 兼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桂枝의 효능은 表邪 제거 보다 通陽의 효능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소 陽氣가 虛弱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받아 桂枝湯證이 발생하였는데, 發汗法의 誤治를 하거나 치료를 지연하여 陽氣가 더욱 모손되고 兼하여 裏部로 傳變된 것이 五苓散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桂枝의 효능이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表邪의 제거와 관련이 있겠지만, 주된 효능은 오히려 通陽을 통해 陽氣의 氣化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6.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傷寒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張民慶, 王興華, 劉華東 主編.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1.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2.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1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1.

## 參考文獻

### <논문>

1. 方正均.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 <단행본>

1. 吳謙. 御纂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2. 陳熠 主編. 喻嘉言醫學全書·尚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3.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4. 裴永清. 傷寒論臨床應用五十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0.
5.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